

광주매일신문 제9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0강 '유연한 리더의 Pivoting'

최윤희 2M 커뮤니케이션 대표

#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유연성’ 키워야”

### 불안 속 여유 중요성 강조... '선례의 함정' 탈피 필요성도 '휴식 이상의 樂 만들어야'... 최선 앞서 초점 맞추기 선행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조점’을 새로 맞춰야 합니다. 과감히 ‘Pivoting’ 즉 기존의 축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23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9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10강에서 최윤희 2M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유연한 리더의 Pivoting(리더십-리프레이밍-상황판단 능력-관계심)’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최 대표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인가”라고 관객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켰다.

관객들이 ‘당당한 태도’, ‘자식’ 등을 대답하자, 최 대표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자 인간이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것은 ‘시간’이다”며 “바쁜 와중 강의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삶

과 직장에서 쓸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열었다.

최 대표는 가장 먼저 리더의 특성에 대해 풀어 나갔다.

그는 리더의 특징 세 가지로 ‘환경-타 하지 않기’, ‘변화 두려워하지 않기’, ‘계산된 리스크 포기하지 않기’를 꼽으며 리더의 멘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했다.

그는 “덜기설기 쌓인 제주도 돌담이 그토록 강한 바닷바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돌 틈 사이사이의 여유 즉 ‘틈’이 있기 때문이다”며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통제도 예측도 어려워 저절로 불안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특히 이런 상황일수록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여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본보 주최로 지난 23일 오후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9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10강에서 최윤희 2M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유연한 리더의 Pivoting’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으로 ‘유연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빠른 변화 즉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그간 쌓아온 노하우 등을 고집한다면 변화의 길목에서 발목 잡힐 수 있다”며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해보는 것으로 시작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만든 ‘선례의 함정’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매주 금요일 서울서 비행기를 타고 1천km를 날아가 즐기는 제주도에서의 해녀 체험을 통해 삶의 낙을 되찾았다는 회사원의 사례를 통해 여유를 키우는 방법으로 휴식 이상의 ‘낙(樂)’을 만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최선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점’ 맞추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 대표는 “최선을 다한다고 모두가 성공하지 않고 더 크게 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최선에 앞서 우선 사업-인생-투자 모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초점과 트렌드 등에 맞춰 ‘Pivoting’, 즉 축을 바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강의를 끝마쳤다. /양시원기자



목포해양대, 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

목포해양대학교는 24일 “최근 GPS인재교육원 주최로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2022학년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50여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전략’을 주제로 ▲새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대응전략 ▲배움과 성장을 위한 평가-피드백 ▲구성원 간 소통·대화 시간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와 변화의 방향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역사회, 해양 관련 기관들과 소통·협업을 통해 목포해양대의 사회적 역할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조선대병원 신봉석 실장·신병철 부장 새병원 신축 발전기금 2천만원씩 기부

조선대병원 신봉석 기획조정실장과 신병철 진료부장이 지난 23일 새병원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 2천만원씩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김경중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집행부와 각 진료과 과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봉석 기획조정실장과 신병철 진료부장은 새병원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의사를 밝혔다.

신봉석 기획조정실장은 조선대병원 피부과장, 보건의료사업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한피부과학회 회원, 대한건선학회 정보교육이사 및 간행이사, 성대개암염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신병철 진료부장은 조선대병원 신장내과 분과장 보직을 거쳐 현재 진료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신장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내과학회 등 여러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복기자



## 김근영 북구필라테스협회장, 조선대 발전기금 기탁

광주 북구 필라테스협회장 김근영 회장이 지난 23일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현재 북구 필라테스협회장으로서 광주 매곡점, 운암점 기구필라테스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대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재학중(운동생리학·지도교수 서영환)이다.

김 회장은 체육대학 학생들의 디딤돌 역할을 위해 현물로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하고 필라테스기구를 기증했다. 체육대학은 김 회장이 기탁한 기구로 체대 6층에 필라테스실을 만들어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키로 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필

라테스기구를 추가 기증할 계획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프로그램 제능기부도 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본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영환 미술체육대학장은 “김 회장이 코로나로 인해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학교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희중기자



## G.MAP-광주음악협회 ‘문화예술 발전’ 협약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은 지난 22일 한국음악협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종영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과 윤영문 한국음악협회 광주지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미술과 음악이 융합하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향후 전시작품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개

발을 비롯해 G.MAP 공간에서 광주음악협회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공연 기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협력할 예정이다.

임종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디어아트 및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공동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 걸맞는 풍성한 콘텐츠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제16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 성료

제16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이 지난 21일 오후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개최됐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재)남도전통예술진흥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심사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명인명무부 종합대상(국회의장상)은 신정아씨가, 일반부 종합대상은 박연희씨가 수상했다.

전북무형문화재 신관철 수견춤 이수자인 신정아씨는 국립국악고, 성균관대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립무용단 차석단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신관철 수견춤 보존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남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박관용류) 이수자인 박연희씨는 세한대 전통연희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진도북놀이 박관용류 보존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대상은 심하은(정주교), 신인부 종합대상은 화순문화원 소속 송숙희 외 4명이 수상했다.

유명숙 (재)남도전통예술진흥회 이사장은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국악경연 한마당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광주여대 산학협력단, 광산일드림센터 개소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산학협력단은 지난 23일 자동차·가전관련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한 구인구직 플랫폼 ‘광산일드림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식전공연과 개식선언 및 내빈소개에 이어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 환영사, 박병규 광산구청장 인사말씀이 이어졌고 김광진 광주시경제부시장,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윤혜영 광산구의 회 부의장이 축사로 센터의 성공을 기원했다.

센터에는 총 4명의 직원이 상주해 자동차·가전 분야 퇴직예정자와 이·전직근로자, 일반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상담과 1대1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며 취업자의 역량 분석 후 취업 목표를 설

정하고 전략적 구직계획을 수립해 집중적으로 구인기업과 매칭시켜 취업알선을 진행한다.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과 연계한 광역 및 북구 취업센터와의 시너지 창출로 연간 100명의 신규 고용과 300명에게 취업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일드림센터 운영 주관 기관인 광주여대 산학협력단 박득 단장은 “구직자들의 이·전직을 통한 일자리 재매치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고용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주력 산업 고용안정에 힘쓰고 지역일자리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 광산경찰,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 대응 훈련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정진관)는 지난 23일 을지연습 기간 중 국가중요시설인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드론을 이용한 폭탄·화약물질 테러를 가상한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대테러 합동훈련은 초동조치팀장인 광산경찰서장(경무관 정진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광산구청, 광산소방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영산강유역환경청, 503여단 1대대, 제1전투비행단, ㈜금성드론교육원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간 임무분담을 통해 테러 용의자를 추적·검거하는 등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 드론을 이용한 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이육근기자

##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목포청소년문화센터 MOU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는 24일 “최근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성장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질 높은 활동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청소년들의 회복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협력, 양 기관의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지원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임형택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



수는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